

## 박찬호父 납치 미수

춘천서 30대 男...“20억 요구 계획”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인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의 아버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는 7일 박 선수의 아버지 박모(55)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인질강도 예비)로 최모(31·춘천시)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씨를 납치한 뒤 박 선수에게 20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며, 범행 계획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9월20일경부터 납치·감금 장소로 경기도 청평 부근의 펜션을 정해놓은 뒤 대포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번호판 2개·수갑과 복면·가발·핸드폰 10개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도주로 등에 대한 현장감사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 지리산 등산로 반달곰 출현 등산객들 위협 행동은 안해

지리산 등산로에 반달곰(사진)이 나타나 등산객이 놀라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경 지리산 천왕봉 등반코스인 중산리~법계사 사이 망바위(해발 1,300m) 부근에 2004년 10월 국립환경연구원이 방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달곰 1마리가 나타났다.

이 반달곰은 등산객들이 사과·배·과자 등을 꺼내 던져주자 받아먹었으며, 일부 등산객들은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했다.

몸무게 100kg 이상 될 뻔한 비교적 큰 덩치의 이 반달곰은 나무에 매달리기도 했지만 달려드는 등 등산객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이 반달곰이 2004년 10월에 방사한 ‘천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리산에는 2004년 10월~2005년 10월 세 차례 반달곰이 방사돼 14마리가 야생상태에서 살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 ‘성급한冬장군’...무등산에 첫눈



‘입동’(立冬)인 7일 새벽, 무등산 최고봉인 천왕봉(해발 1,187m)의 최저기온이 영하 3.1도로 떨어지면서 첫눈이 내렸다. 올 들어 무등산에 내린 첫눈은 지난해에 비해 27일 빠른 것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가을이 가고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 이를 알리듯 광주 무등산에 반가운 ‘첫눈’이 내렸다. 올해 첫눈은 지난해(12월4일, 29.2cm)에 비해 27일 빠른 것이다.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도 올 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졌다.

◇무등산 첫눈=지난 6일 밤 11시 10분경부터 무등산 천왕봉(해발 1,187m) 인근에 송이송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내려 2cm 가량 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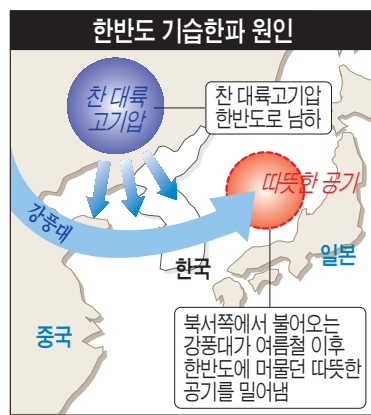
이날 눈은 장불재(≈ 900m)에서 천왕봉까지 내렸다. 일부 지역은 5cm 이상 쌓이기도 했다. 낙엽에는 서리가 얇게 내려앉았고, 나무 가지 사이에는 상고대가 하얗게 피었다.

무등산에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비가 내렸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눈으로 바뀌었다.

7일 새벽 4시43분경 무등산 천왕봉의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영하 3.1

## 작년보다 27일 빨라...상고대도 ‘할짝’

## 광주·전남 한파 아침 최저 영하 ‘뚝’



도를 기록했다. 해가 뜨기 직전까지 기온은 영하 3도를 유지한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첫눈이 가장 빨랐던 곳은 설악

▲상고대(樹霜, air hoar)= 밤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승화(昇華)돼 냉각된 나무나 지표면의 물체에 달라붙어 하얀 꽃처럼 핀 것. ‘나무서리’라고도 한다. 높은 산과 추운 지방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 대청봉(10월23일)이었다. ◇갑자기 왜 추워졌나? 기온이 뚝 떨어진 원인은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이 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찬 대

륙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고,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풍대가 그동안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렀던 따뜻한 공기를 동쪽으로 밀어냈다”고 설명했다. <도표>

그동안 한반도 주변에는 따뜻한 공기가 세력을 유지해, 비를 머금은 기압골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을 뿐 내륙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고, 지난달 초까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찬 대륙성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늦가을과 겨울에 보이는 기압 배치를 보였고 기온이 급감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8일에는 찬 대륙성 고기압 세력이 수축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져 평년 기온(6~19도)과 비슷해지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9일에도 5mm 내외가 내릴 전망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인애동산·주민 협상 결렬

## 주민 대표성 입증 못해...9일로 연기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건설 예정인 노인요양원을 둘러싼 ‘인애동산’(대표 김인제) 측과 주민들 간의 협상이 다시 결렬됐다.

양측은 7일 ‘인애동산’에서 만나 노인요양원의 ▲‘인애동산’ 내 재배치 ▲제3의 장소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대표들이 오후 3시로 예정된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아무런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회의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게 참석했으나, ‘인애동산’ 측이 요구한 ▲주민총회 회의록 ▲주민 동의에 의한 위임장 등 대표성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인애동산 내 재배치에 합의하자”는 쪽과 “제3의 장소 외엔 안 된다”는 쪽으로 양분돼 있는 등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협상은 이에 따라 9일로 다시 연기됐

다. 앞서 ‘인애동산’과 주민대표는 지난 4일 1차 협상을 갖고 ▲제3의 장소 이전 ▲‘인애동산’ 내 재배치 등 2가지 방안 중 ‘제3의 후보지를 우선적으로 탐색하자’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인애동산’ 김천수 총무팀장은 “‘제3의 장소’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주민 총회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와만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4일 주민들이 시위 전막을 철수하자 ‘제3의 장소 합의안’을 제안하자 격앙된 주민 감정을 가라앉혀야겠다는 생각에 대표성에 대한 확인 없이 직접 작성해온 합의서에 서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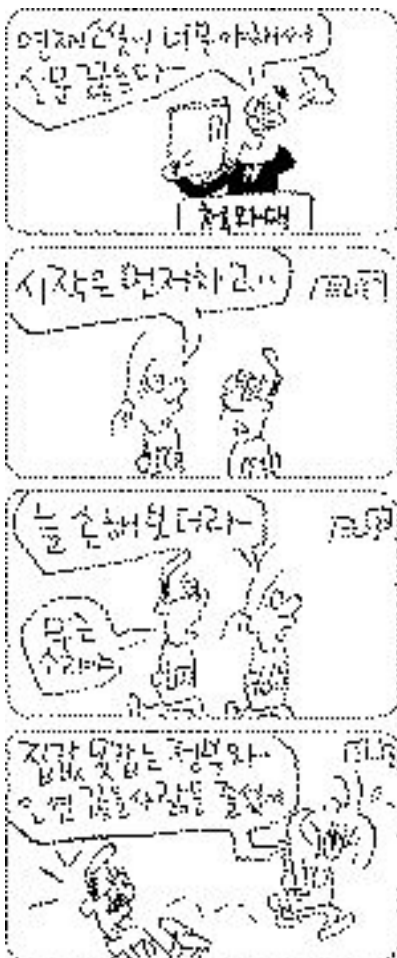
## 김태춘씨 공항 체포

## 교도관 뇌물 준 혐의

폭력 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의 김태춘씨가 해외로 출국한 지 3개월여 만인 7일 새벽 귀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압송돼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진주지청은 김씨가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이 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56)씨에게 2천8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전화 사용이나 휴면 등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연합뉴스

## 나원침 (6970)



발달장애인의 중심특성  
돌리는 3.6% 확대단기  
정신장애·중증장애·장애인 복지  
수원신도시 파오래  
062-367-9000

## 사전선거운동 60대 고발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31 전남도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학교 운영위원회에 돈을 건넨 C(62·목포시)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발가락 붕합수술 잘못” 의사 고소

○교통사고로 발가락이 잘린 60대 여성이 “잘린 발가락을 확인하지 않고 붕합수술을 했다”면서 담당 의사를 처벌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

○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66·북구 문흥동)씨는 “지난 6월 승합차 바퀴에 오른쪽 발이 밟히는 과정에서 네 번째 발가락이 잘려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광주 모 정형외과 의사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 속에 있던 잘린 발가락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붕합수술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그러나 “김씨가 병원에 왔을 때는 양말을 신고도 않았고, 발가락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